

물류협회, 물류센터 분과위 결성



국내 물류센터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과 창고의 SCM 효율화 핵심 기능 수행에 기여 목적으로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던 한국물류협회 산하 물류센터(창고)분과위원회 결성식이 지난 3월 31일 협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결성식에는 물류센터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서병륜 협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물류센터 분과위 결성배경 및 지원방향에 대해 신유균 부회장의 설명, 그리고 이강성 TL코리아 사장을 분과위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서병륜 회장은 “물류협회는 전체 물류산업에서 각각의 회원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여년간 최선

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이번 분과위는 현재 협회 내 다양한 분과위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유균 부회장은 “지난 1984년 협회 발족 이후 한국물류협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류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 정부의 동북아 중심 물류국가 건설을 수행하는데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물류센터(창고) 분과위원회 출범은 지난해부터 약 8개월간 꾸준히 준비해 왔던 사업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물류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는 물류센터(창고)가 전체 물류산업을 하나의 SCM으로 묶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물류협회가 물류센터 분과위원회를 결성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단순한 보관에서 벗어나 운영 소프트가 중요시 되고 있어 물류센터의 단순한 하드웨어 기능을 탈피하고 SCM 효율화의 중요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물류센터의 기능이 중시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 물류센터들은 공급과잉과 정보부족 및 공급자의 영세성, 제도적 지원부족 등의 주요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차에 지난 3월 31일 결성된 한국물류협회 물류센터분과위원회에 거는 관련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의 관심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물류센터는, 다양한 지원정책과 애로사항 등 개별 창고 주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물류센터(창고) 분과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협회는 정책건의에 관한 지원만 하고 회원사들간 자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류센터업계의 권익 신장과 실익 제공에 최우선적 목표를 두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사항의 수렴 및 관계 부처에의 건의, 관련 정책담당자들과의 정책간담회 주선, 물류센터 관련 실태조사의 실시,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이날 물류협회 산하 물류센터 분과위원회 결성식은 양지물류, 용마유통, 레스코, 국제종합물류, 서영물류, 현일냉장 등 총 17개 회원사(창고업체, 창고관련 설비 및 장비업체, 컨설팅사 등)가 참석했으며, 초대 위원장으로 TL코리아 이강성 대표이사가 선임됐으며, 부 위원장은 양지물류 김성구 상무가 중책을 맡게 됐다. 또한 분과위원회 실무책임직 간사로는 TL코리아 김태석 부장과 물류협회 박현곤 차장이 선임됐다. **물류**